

# 미국도서관의 우리책

이상택

서울대 교수·국문학

하바드대학교 燕京圖書館은 찰스강변의 내 숙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다. 강물을 따라, 봄에는 겹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에는 낙엽이 아름답게 흩날리는 강변길을 걷다가 케네디파크를 가로질러 시내로 들어서면 도서관과 숙소 중간쯤 하여, 거기 내가 1988년 늦여름부터 1989년 늦여름까지 꼬박 일년동안 육중한 룩색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신발이 닳도록 드나들던 복사점이 고서점가 한쪽 옆에 거만한 몸짓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육중한 룩색 속에는 언제나 일이백년은 실히 묵었을 고풍내 나는 韓裝本 고서를 비롯하여, 당시 국내에서는 좀처럼 입수하기 어려웠던(그러나 지금은 그 상당부분이 복사본으로 국내에도 보급되어 있다) 북한의 문학분야 서적들과 중국 서적들이 수십책씩 들어 있었는데 이들은 물론 燕京圖書館에서 대출한 책들이었고, 복사점 종업원과 이용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하루종일 복사기 한대를 독차지하여 손수 찍어내던 그날그날의 내 작업거리였던 것이다.

말이 그렇지 매일 수십책씩을 뒤져 오류백장의 자료를 복사해내는 일은 이만저만한 신역이 아니었다. 꼬박 서서 대여섯 시간씩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허리통증에다가 사지는 뒤틀리고 눈마저 아물거리고 피로하여 현기증이 나곤 했다. 그 고서들은 한문으로 표기된 族譜와 文集類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지하서고의 한쪽켠에는 수백책에 달하는 국문 필사본이 꽂혀 있었는데, 개중에는 諺簡이나 가사, 수필류 등도 간간히 섞여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필사본 고소설이었다. 이들 고소설 중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장편 중국소설들 예컨대, 「三國誌演義」 「수호지」 「홍루몽」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춘향전」 「홍부전」 「구운몽」 등을 비롯하여 약 40여종의 한국고소설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도 「金允傳」 「閔時榮傳」 등과 같은 唯一本과, 「昌蘭好緣」 「玉蘭奇緣」으로 구성된 「昌蘭好緣錄連作」 「老翁本 九雲夢」과 같은 희귀본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치 중앙아시아 오지에 방치된 한민족의 운명과도 같아, 그럴 이유도 까닭도 없이 낯선 異域에 강제로 이송되어 와서 그 긴 세월동안 까마득히 잊혀진 망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아마 그들은 필사의 손길이 닿기까지는 그곳에 한번 꽃핀 이후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 채 그 존재 자체가 외면된 상태였던 듯하여, 기름을 먹인 책갈피가 엉겨붙어 떨어지지 않는 책이 있는가 하면, 종이 쓸어 지렁이 기어간 자국같이 구멍이 뻘뻘 뚫리고 먼지가 풀풀 날리는, 도저히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책도 있었다. 내가 마치 결신들린 사람처럼 이들을 닦치는 대로 대출하여 정신없이 복사 작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비록 복사품이지만 이들 자료를 하루빨리 국내에 역수입하여 보관하고 또 보급하려는 마음이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로서는 참 어이없고 황당한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하루는 여느때와 같이, 도서 대출을 받을 때마다 겪는 미국인 직원의 냉혹하고 혐오에 찬 까다로운 푸대접을 감수하면서 책을 빌리고 허겁지겁 복사실로 달려가 작업을 막 시작하는 참이었는데, 그 전부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곤 하던 나이저긋한 미국인 女管理인이 다가와서, “허구한 날 이 책들을 복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國外(물론 美國外)로 반출하려는 게 아닌가”, “이 책들은 우리가 지닌 소중한 문화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운운하며 단호하고도 위풍당당하게 공갈을 치는 게 아닌가. 주눅이 들대로 든 나는 짧은 영어로, “그렇지 않다. 자료를 반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 공부하기 위한 연구자료에 불과하다”라는 요지로 얼버무려 위기를 모면하긴 하였지만, 귀국할 때 가위 목숨보다 소중한 이 자료들을 신주 모시듯하여 들여왔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껏 그 여감독의 엄포가 마음에 걸려 이 자료들의 강행 보급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적반하장도 유분수격이어서 분하고 껄뻐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도대체 이 자료들의 지적소유권은 미국에 속하는가 한국에 속하는가?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 지적 유산인 이 자료들이 왜 엉뚱하게 미국 문화재로 귀속되고 왜 우리는 그들의 눈치를 살피야 하는 건지, 생각해도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분하기만 하다.

- 연재기획 2 “**문명적 사유의 잠재력 전체를 상징한다**”— 김상환  
책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 ① - 책의 두께에 대하여
- 초점 4 “**학술출판에 중점 둔 출판진흥정책**”— 김성재  
학술출판 환경과 그 대처방안
- 표지인물 8 **발로 뛰어 글로 써낸 향토민예의 정수**  
「강원의 미」 퍼낸 유용태씨
- 집중취재 10 **제이름 감춘 채 남의 책 대신 써준다**— 최태원  
출판계에 대필업 성행... '매문과 허명의 결합' 비판도
- 서평 12 이남영 외 「**한국의 선거**」— 어수영  
이두영 「**출판유통론**」— 부길만  
13 암스트롱 외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신복룡  
현길언 「**배반의 끝**」— 구모룡
- 출판화제 14 **문학도 이전 특정인들의 전유물 아니다**  
글쓰기의 대중화 이끄는 책들 폭넓은 인기
- 화제의 책 15 안그리픽스 펴낸 「**한국의 전통문양 - 탈**」
- 출판화제 16 **폭력과 범죄의 잔혹사 독자들 주목 끈다**  
살인 사형 처벌 등 인간의 공격성 해부한 책들
- 17 **신년운수 점치는 실용역술서 출간 활기**  
최근 두세해 사이 눈에 띄게 늘어
- 18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해 부르는 만가**  
급격한 현대화 추세속 추억과 향수 자극한다
- 출판사초대석 19 **제작공정 현대화 이론 문학출판의 신명문**  
실험정신 내세우며 젊은 작가들 우대하는 세계사
- 이 책 그 사람 20 「**풀종다리의 노래**」 퍼낸 손석희씨  
「**따옴표 사랑 느낌표 사랑**」 낸 정진화씨  
21 「**한약은 죽었다**」 낸 공동철씨  
「**머피의 법칙**」 번역한 이인식씨
- 해외출판 22 **출판의 미래 이끌 새 비전과 가능성**— 유은영  
「**퍼블리셔스위클리**」의 '2천년대를 향한 미래의 출판'
-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7 출판계 동정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